



Overweight

2026년 5월 6일 | 산업분석_Update

방위산업

독일 주둔 미군 일부 철수 보도: 글로벌 국방비 증액 논리 강화

독일 주둔 미군 약 5천명 철수 명령 보도

현지시각 5월 1일 미 국방장관이 향후 6~12개월에 걸쳐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약 5,000명의 철수를 명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유럽 내 미군 병력 태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 결과이며 유럽 작전구역 현지 여건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독일에 남게 될 약 3만 명 안팎의 병력 운용 계획이나 이번 철수가 다른 NATO 회원국 주둔 미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NATO 대변인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정은 유럽이 방위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공동 안보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독일 국방장관도 이번 결정이 예상 밖의 일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유럽이 자체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미군 주둔 현황: 1960년대 정점 이후 장기 하락. 현재 21.7만명 주둔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규모는 냉전과 베트남전쟁 시기 고점을 기록한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쟁, 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쟁, 2000년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병력 규모는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전쟁 종료 이후에는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의 중장기 흐름은 축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세기 중반 이전 0에 가까워지는 경로에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한편 2026년 3월 기준 해외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총 약 21.7만명으로 파악된다. 이 중 미군이 1만명 이상 주둔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독일, 한국, 쿠웨이트, 카타르, 폴란드로 총 7개국이다. 이번에 보도된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 철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은 약 3.4만명에서 2.9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더욱 강화되는 글로벌 국방비 증액 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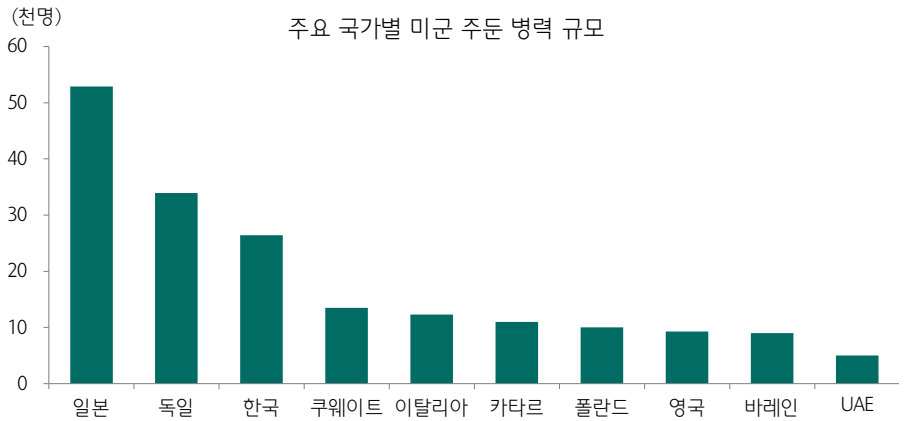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감소 추세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1) 전체 미군 현역 병력 규모 축소(1950년대 364만명→2025년 137만명), 2) 미소 냉전 종료 이후 유럽에 대규모 병력을 상시 주둔시킬 필요성 약화, 3)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의 발전(1인당 전투력 상승→더 적은 병력으로 동일한 전력 유지 가능)이다. 물론 해외 주둔 병력 규모가 미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나 장거리 전력투사 역량과 그대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맹국 입장에서 미군 주둔은 단순한 전투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현지에 미군이 주둔한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이 해당 지역을 방어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이며 이는 적대국에 대한 억제력, 동맹국에 대한 안심 효과, 안보협력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결국 미국의 해외 주둔 병력 축소, 동맹국 방위비 부담 압박, NATO 방위공약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는 유럽 및 주요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 논리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조정세를 보여온 유럽 방산주 반등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한국 방산주에도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한다.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도표 1. 주요 국가별 미군 주둔 병력 규모

2026년 3월 기준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약 21.7만명



자료: 미 전쟁부 인력 데이터센터,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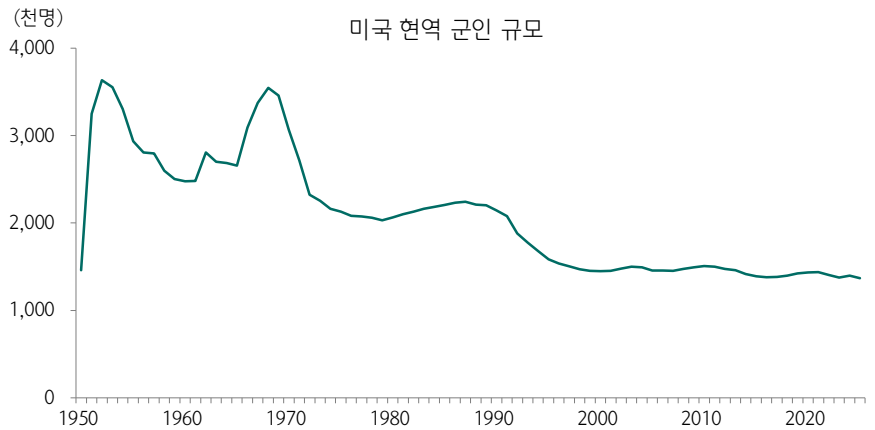
도표 2. 미국 현역 군인 규모 추이

2025년 기준
미국 현역 군인은 약 137만명

1950년 기준 약 146만명

한국전쟁 당시 약 364만명

베트남전쟁 당시 약 358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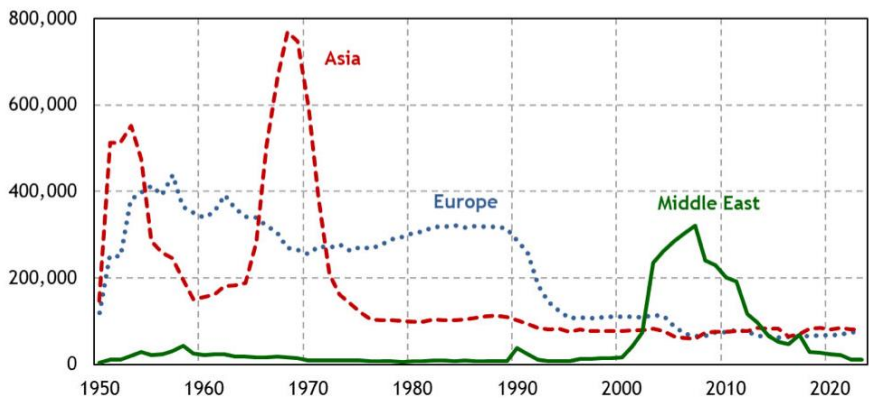
자료: 미국 대통령 예산안 예산/통계 참고서, 하나증권

도표 3. 지역별 해외 주둔 미군 병력 규모 추이

아시아 지역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당시
일시적으로 증가

유럽은 냉전 종식 이후 지속 감소

중동은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후 감소 추세



자료: 미 전쟁부 인력 데이터센터,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5월 6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채운샘)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채운샘)는 2026년 5월 6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 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6.83%	3.17%	0.00%	100%

* 기준일: 2026년 05월 01일